

“천사호” 하늘을 날다

—도서지역의 의료사업을 위하여—

〈서울위생병원 간호학교장〉 안 귀 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 지는 사건이 지난 9월 8일 낮 2시에 서울 수색 비행장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서 지역의 의료사업을 위해 멀리 미국에서 날아온 “천사호”의 명명식과 아울러 취항식 광경이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천사호”의 취항식은 우리 교계(敎界)와 의료계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한국 국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에 태어났다는 죄트 진료의 혜택까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하며 문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도서민들은 여지껏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疎外)되었으며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계에서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도서민을 위한 구제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원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뜻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에서 여론이 되어 미국 안식일교 방송 목사인 터클(J. L. Tucker) 목사가 전파를 통해 미국의 청취자들에게 호소하게끔 이르렀습니다.

정열적이고 봉사적인 이 호소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표시로, 어떤 이는 어머니를 추모하는 표시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3만달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성금으로 시속 132마일, 최대 비행거리 600마일이 되는 신형 수륙 양용 비행기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

“천사호”는 액면 그대로 무의존 도서민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봉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이 명예스러운 복음의 천사호를 조정할 알렌 박사 때문입니다.

다행히제도 서울위생병원 치과 과장이신 알렌 박사는 민간인 조종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비행기는 있어도 조종사가 없어 운항 못할 염려를 거뜬히 해소해 버렸습니다.

알렌박사가 손수 이 비행기를 조정해서 한국까지 가지고 온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이제 이 천사호의 효율적인 활약을 위해 서울 위생병원과 부산 위생병원에서는 각기 의사와 간호원으로 의료반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천사호”가 한국의 무의존과 도서지역을 위해 봉사할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본교단 한국연합회장이신 유경수 목사의 “천사호” 헌납사(獻納辭)를 소개할까 합니다.

* * *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회의 영적, 육적, 정신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단에 소속된 교회, 학교, 병원, 진료소 등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최단 시간내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 교단은 인간적인 도움과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비행기를 사용하고

《56 page에 계속》

좌위에 환자의 신체를 바른 자세로 높히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래 어떤 의사들은 전례대로 한다면 침상에서 절제 안정을 하도록 지시를 받을 정도의 중증환자도 의자에서 안정하도록 처방을 내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세도 바르게 되도록 지지해주고 의자에서 체위를 변경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는 간호원이 환자의 체위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자의 체위킬 변경시킬 때에 자기를 돕도록 가르칠 필요도 있으며 또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운동신경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환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간호원들은 또한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계적장치의 사용이나 홀이들을 사용하여 환자를 들러 높이거나 쳐드는 방법에도 익숙해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간호원들은 환자운반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지방의 자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와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나 또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똑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기을이는 것도 간호원의 책임이다. 건강한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도 빈번하게 움직

이며 일어나 있는 기간 거의 정지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혹은 마취되어 있는 환자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시간마다 간호원이 그 체위를 변경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누워 있기만 하는 환자의 요창을 예방하기 위해 빈번하게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여 주고, 또한 환자의 몸을 청결히 하여주는 일은 환자에게 부여되는 간호의 質을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자에 앉든가, 하루에 몇걸음씩이라도 보행을 하든가, 혹은 기타의 모양으로 누워 있기만 하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극히 소수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환자들이나 신체장애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간호원이면 體位交換을 할 수 있는 침상이나 Stryker, Foster frame 침대 기타의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요창이 일어나기 쉬운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돕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身體機轉에 관한 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물리치료사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간호원의 책임은 꽤 가벼워진다. 그러한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간호원은 환자가 계속하도록 간호원이 도울 수 있는 어떤 계획표를 만들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57 page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비행기가 한국국민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어졌던 것입니다.

첫째로, 비행기는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그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행기는 의사들의 여행을 보다 신속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한국의

여러 벽지와 도서지방에 조직적인 진료소들을 개설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도움도 아울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륙 양용 비행기가 육체적,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비행기를 헌납합니다.